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의 내용에 대한 고찰*

배진영**
bjy3175@b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1. 제1부 “청해테스트”의 내용분석 |
| 2.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의 구성 | 3.2. 제2부 “청독해테스트”의 내용분석 |
| 3.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의 내용분석 | 4. 나오며 |

主題語: 청해테스트(Listening test), 청독해테스트(Listening & Reading test), 비즈니스일본어능력시험 (Business Japanese Proficiency Test), 내용(contents), 비즈니스 일본어(business Japanese)

1. 들어가며

일본어판 TOEIC으로 불리는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¹⁾는 1996년 JETRO가 주관이 되어 실시되다 2009년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로 이관되었으며, 2018년 현재 전 세계 8개국의 35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험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²⁾,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는 2017년 4월부터 CBT방식³⁾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험 방식이 CBT방식으로 바뀌면서 시험일 전날까지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시험자의 스케줄에 맞추기 수월해졌으며 시험 후 시험 결과를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시험자들로 하여금 접근이 쉬어졌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해 수행된 것임.

**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조교수

- 1) BJT의 개발에는 비즈니스 관계자는 물론 일본어 교육학, 언어학, 통계학 등의 전문가가 테스트의 작성이나 특징 집계 방법 등에 대해 검토를 거듭하여 정밀도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연구하고 있다.
(<http://www.bjtest.com/>)
- 2) 국내에서는 공익재단법인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에서 실시 주축하며 사단법인 한일협회에서 위탁기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실시회수는 연간 2회(6월, 11월), 실시장소는 서울(KD Tech 영등포시험센터(영등포), 대우직업능력개발원(노원구)), 부산(아이티뱅크 멀티캠퍼스(센텀시티))에서 실시되며 시험료는 약 6만원(6,999엔:일본국내)
- 3) CBT(Computer Based Testing)방식이란 테스트센터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제와 해답을 하는 방식이다. 시험자는 개별적으로 준비된 부스에서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문제와 헤드폰으로 나오는 음성으로 화면 상에서 해답을 하는 것으로 BJT는 2017년 4월부터 이 CBT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 테스트에 관련된 연구나 대비교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裴晉影(2017)⁴⁾에 의하면 국내에서의 비즈니스일본어 관련 교재의 매년 출판 수는 적지 않으나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는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기존의 비즈니스일본어 교재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李明寧(2013)은 1993년~2013년까지 시판된 한일 양언어의 「비즈니스일본어」 교재의 「장면」, 「일러스트」, 「시대별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장면의 등장인물의 관계나 인간관계가 제시되지 않는 교재가 많다고 지적하며 비즈니스 교재의 명확한 인간관계의 필요성과 장면을 이해하고 추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일러스트의 고안 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방선영(2009)은 2007년~2009년까지의 비즈니스 일본어교재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레벨의 불분명한 점과 메일이나 팩스 등의 문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小野寺(2005)은 한일 양국의 비즈니스교재와 일본기업 신입사원 매뉴얼을 비교분석하여 현 비즈니스교재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의 국내에서의 비즈니스 일본어교재의 인간관계나 레벨의 불분명함 등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인간관계를 나타내거나 다양한 문서가 필요하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설정이나 문서에 대한 제시가 없어 이에 대한 고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는 BJT비즈니스일본어테스트는 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메일, 팩스 등의 글과 도표, 사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일본어를 이해하고 운용하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⁵⁾ 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 국내에서의 비즈니스일본어교재로는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가 측정하는 내용과는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상의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척도를 평가할 수 있는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에 주목하여 이 시험의 파트별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데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일본어의 수업을 디자인함에 있어 구체적인 교수내용의 편성 등 효율적인 교수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4) 裴晉影(2017)「韓國のビジネス日本語教材の一考察—BJT日本語能力テストに注目して—」『일본문화연구』동아시아일본학회

5)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의 테스트 개요 참조(<http://www.bjtest.com/>)

2.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의 구성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는 「청해테스트」, 「청독해테스트」, 「독해테스트」의 3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표1>과 같이 다시 각각 세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다.

<표1> BJT비즈니스일본어테스트 파트별 구성

파트	형식	섹션1	섹션2	섹션3	시간
제1부	청해테스트	장면파악문제 (5문)	발언청해문제 (10문)	종합청해문제 (10)	45분
제2부	청독해테스트	상황파악문제 (5문)	자료청독해문제 (10문)	종합청독해문제 (10)	30분
제3부	독해테스트	어휘,문법문제 (10문)	표현독해문제 (10문)	종합독해문제 (10)	30분
합계		80			105분

이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는 총 80문제를 약 2시간(105분)⁶⁾ 실시하고 있으며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는 합격 불합격이 아닌 800점 만점의 총 6단계⁷⁾로 평가되고 있다.

1) 제1부 청해테스트

제1부 청해테스트는 섹션3으로 나뉘지며 「장면파악문제」, 「발언청해문제」, 「종합청해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제1부는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보고 답하는 문제로, 섹션1은 사진의 장면을 파악하는 문제이고, 섹션2는 음성을 들으며 사진을 보고 답하는 문제이다. 섹션3은 일러스트를 보면서 음성을 듣고 답하는 종합적인 문제이다. (일러스트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2) 제2부 청독해테스트

제2부 청독해테스트 또한 총25문항이며 「상황파악문제」, 「자료청독해문제」, 「종합청독해

6) 시험시간은 테스트 설명 및 양케이트를 포함한 시간임(이전은 100문항 120분 시험에서 변경됨). 제2부의 청독해부문은 이전 30문항의 섹션1,2(표사문제, 청독해문제) 구성에서 현재는 25문항의 섹션1,2,3(상황파악문제/자료청독해문제/종합청독해문제) 구성으로 변경되었다. 문항 등의 변경으로 시간도 30분에서 25분으로 변경되었다.

7)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는 800점 만점에, J1~J5의 6단계의 레벨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의 3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섹션1의 「상황파악문제」는 사진을 보며 회화문의 화제를 찾는 문제이며, 섹션2의 「자료청독해문제」는 시각자료를 보며 그 자료에 관해 답하는 문제, 섹션3의 「종합청독해문제」는 시각자료를 보면서 그와 관련한 회화문 등을 듣고 답하는 문제이다.

3) 제3부 독해테스트

제3부 독해부문은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휘, 문법문제」, 「표현독해문제」, 「종합독해문제」의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섹션1의 「어휘, 문법문제」는 어휘나 문법을 묻는 문제이며, 섹션2인 「표현독해문제」는, 문장의 공란에 적절한 표현을 넣는 문제이다. 섹션3의 「종합독해문제」의 경우, 문장을 읽고 답하는 독해문제이다.

3.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의 내용분석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는 앞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메일, 팩스 등의 글과 도표, 사진 등의 정보를 통해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상기의 <표1>를 보면, BJT비즈니스일본어테스트는 80문항(105분) 중, 글과 도표 사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청해테스트가 50문항(75분)을 차지하고 있어 청해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3장에서는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가 어떤 비즈니스 상황을 측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제1,2부 파트의 「청해테스트」와 「청독해테스트」에 주목하여 이들의 문제유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BJT 주최 측에 의하면 BJT는 일본어나 비즈니스 지식의 유무만을 측정하는 테스트가 아니며, 일본어 비즈니스 환경에서 상정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출제범위가 되며 일본어 문법이나 어휘 비즈니스 지식은 전제지식⁸⁾으로 두고 정보처리능력이나 비즈니스 스킬이 주요한 측정 대상이 되고 있다⁹⁾.

8) 여기서 전제지식(일본어에 관한 지식)이란 음성, 표기(문자), 문법, 어휘, 담화유형, 담화스타일, 사회적 지식, 문화적 지식, 심리적 지식, 비즈니스적 지식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전제지식을 바탕으로 크게 3파트로 분류하여 ‘청해능력’과 ‘청해와 독해의 복합능력’, ‘독해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를 추측하는 기능, 정보를 종합하는 기능, 정보를 추측하는 기능 정보를 예측하는 기능, 정보를 기억하는 기능,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기능, 정보를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는 기능, 논리관계를 꿰뚫는 기능, 정보의 스피드에 적응하는 기능, 비즈니스 스킬 등이 측정되고 있다.

9) BJT 주최 측에 의하면 ‘BJT가 측정하는 대상’은 BJT는 일본어나 비즈니스 지식의 유무만을 측정하는

여기에서 출제범위인 「일본어 비즈니스 환경에서 상정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란 매우 광범위하며 수험자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아직 직장 경험이 없는 수험자의 경우 비즈니스 상황자체를 상정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를 준비하는 수험자들의 보다 효율적으로 시험 대비를 위해 시험의 비중이 높은 “청해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과 2018년에 발행된 BJT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테스트 공식 모의 테스트 문제를 바탕으로¹⁰⁾ 이 문제들이 어떤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지 내용을 상황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3.1 제1부 “청해테스트”의 내용분석

섹션1은 사진의 장면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는 「장면파악문제」이다. 모의테스트2015(이후, 모의2015)와 모의테스트2018(이후, 모의2018)의 문제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청해테스트” 섹션1 「장면파악문제」 모의(2015)>

- 問1. 上司がプロジェクトの概要を説明している。
- 問2. 男女社員がプリントの具合を見ている。
- 問3. 挨拶をしている。
- 問4. 受付で、名前を書いている。
- 問5. オフィスでプリンターを見ている。
- 問6. 3人の男の人が、工場見学をしている。

<제1부 “청해테스트” 섹션1 「장면파악문제」 모의(2018)>

- 問1. 握手をしている。
- 問2. 個人面接をしている。
- 問3. 男の人が発表をしている。
- 問4. 資料をみながら電話をしている。

테스트가 아니다. 일본어의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것을 전제로 주어진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테스트이다. 따라서 일본어 비즈니스 환경에서 상정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출제범위가 된다. 일본어 문법이나 어휘 비즈니스 지식은 전제지식으로 두고 정보처리능력이나 비즈니스 스킬이 주요한 측정대상이 되고 있다.(<http://www.kanken.or.jp/bjt/about/feature.html>)

- 10) 비즈니스상황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출제문제의 양적인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좋겠지만 현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는 과거출제문제를 공표하고 있지 않아 본고에서는 BJT비즈니스일본어 능력테스트의 모의테스트인 2015년(가토2015a)과 2018년(공익재단법인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 편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問5. 仕事の打ち合わせをしている。

위와 같이 모의2015는 총 6문항으로 「회의, 동료와의 대화(인쇄물), 명함교환, 접수처(이름 쓰기), 프린터, 공장견학」 장면의 문제이다. 모의2018의 경우, 5문항¹¹⁾으로 「악수, 면접, 발표, (자료를 보며)전화, 업무 사전회의」 장면의 문제이다. 이 중 「공장견학」을 제외하고 모든 장소가 사내에서의 내용이며 그림만으로 대략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대인관계는 상사와 부하 또는 동료의 대화이며, 사내에서의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회의-사전회의, 발표
전화-업무통화
대화-인쇄물, 명함교환, 접수처, 프린터, 면접, 악수

다음으로 섹션2 「발언청해문제」는 음성을 들으며 사진을 보고 답하는 문제로, 모의2015와 모의2018의 문제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청해테스트” 섹션2 「장면파악문제」 모의(2015)>

- 問1. 他部署の課長に部下を紹介する表現
- 問2. 上司の頼みに対する敬語表現
- 問3. 部下の上司へのお礼表現
- 問4. 会議の資料を上司にチェックしてもらうときの表現
- 問5. 上司の業務命令に対する部下の断り表現
- 問6. 上司から役員に届ける書類を受け取る時の表現

<제1부 “청해테스트” 섹션2 「장면파악문제」 모의(2018)>

- 問1. 取引先の人を応接室へ案内するときの表現
- 問2. 上司から急ぎの仕事を頼まれ、引き受けるときの表現
- 問3. 本社から視察に来た社長が帰るとき、空港まで車で送るとき表現
- 問4. 取引先から部長あての電話がかかってきたとき、取り次ぎの表現
- 問5. 異動先の支店でのあいさつ表現
- 問6. 取引先からの電話で担当者が不在の場合、伝言を頼みたいと言われたときの表現

11) BJT의 출제문항수가 2015년도에는 제1부 청해테스트 35문항(묘사(10),표현력(10),청해(15)), 제2부 청독해테스트 30문항(묘사(15), 청독해(15)), 제3부 독해테스트 35문항(문법어휘(10), 표현력(10), 단문독해(15))에서 2018년도 파트별 문항수 및 전체적인 문항수가 <표1>과 같이 바뀌었다.

- 問7. 取引先で自分の会社の製品を買ってもらうため説明するとき、説明の最後の表現
 問8. 取引先で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が終わり、質問を受け付けるときの表現
 問9. 作成した資料を上司に確認してもらうときの表現
 問10. 取引先の人に、電話で、会社の記念パーティーに相手が送ってくれたお花のお礼を伝える表現

상기와 같이 모의2015는 「신입사원인 부하의 소개, 상사에게 부하의 (경어)의사표현, 상사에게 부하의 감사표현, 상사에게 회의자료 체크, 상사의 업무명령에 대한 부하의 거절표현, 상사로부터 서류를 받을 때 표현」에 관한 문제이다. 모의2018은 「거래처 방문객의 응접실(접견실) 안내표현, 상사로부터의 급한 업무 명령 시 표현, 본사 사장님의 공항까지 배웅 시 표현, 거래처 부장의 전화연결 시 표현, 인사이동시 인사표현, 담당자 부재 시 전언을 부탁받았을 때의 표현, 거래처와의 제품설명회 이후, 설명 마지막 표현, 프레젠테이션 후, 질문을 받고자할 때 표현, 자료 작성이후 상사에게 확인 시 표현, 거래처 사람이 보내준 꽃다발에 대한 감사표현」에 관한 문제이다.

섹션2 「발언청해문제」는 그림만으로도 대략 상황은 파악할 수 있으나 그 상황에 적절한 표현법에 대한 지식을 요하는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12)

전체적으로 문제유형을 보면 상사와 부하간의 대화내용으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화자의 위치에 맞는 적절한 경어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입사원인 부하의 소개” 표현을 제외하고 모두 상사와 부하의 대화에서 부하가 발화자로 상황에 맞게 부하로서의 적절한 표현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다.

모의2015의 상황설정이 주로 사내에서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라면 모의2018은 경어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과 사무실 이외의 상황설정으로 보다 다양해져 실제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13) 제1부 “청해테스트” 섹션2 「발언청해문제」의 문제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대화-소개표현(부하소개), 감사표현(상사, 거래처선물), 인사표현(인사이동),
 안내표현(접견실), 배웅표현(공항),

12) 예) こちらは(こいつ/この人/このお方)、新人の山田君です。~てくれる/いただける、~お世話様でした(상황에 맞는 표현 찾기)

13) 예를 들어 3번의 경우 「본사 사장님 시찰 후 공항까지 배웅 시 표현」을 묻는 문제로 「1)社長、空港までお送りします。2)社長、送ってやります3)社長、送ってあげます4)社長、お送りいただきます」의 표현이 제시되고 있다.

전화응대-전언, 전화연결

업무-거절표현, 서류받을 때, 서류확인 시(2), 업무명령 시, 부탁 시

회의-질문받을 때 표현, 설명회 마무리표현

섹션3은 장면을 나타내는 일러스트를 보면서 음성을 듣고 답하는 종합적인 청해문제이다.
섹션3의 「종합청해문제」의 모의2015와 모의2018의 문제유형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청해테스트” 섹션3 「종합청해문제」 모의(2015)>

- 問1. このスピーチはどんなスピーチですか。(会社をやめる時のあいさつ)
- 問2. 電話で上司からお弁当の注文を頼まれました。いくつ頼みますか。
- 問3. 課長と部下が出張先で話しています。部下の社員はいつ出張先を出ますか。
- 問4. 社内での電子メールの活用をすすめているシステム部長と部下が話をしています。
部下は、部長にどうしてほしいと言っていますか。
- 問5. 自動車メーカーの役員と技術担当課長が話しています。ふたりの話しているプロジェクトの目的は何ですか。
- 問6. 貿易会社の社員が輸出する商品の信用状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信用状の訂正箇所はどこですか。
- 問7. 社内で部長と課長が話しています。この会社は役員の体制をどう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か。
- 問8. 式典の会場に遅れていきました。男の人がスピーチをしています。どんな内容のスピーチですか。
- 問9. ユニットバスの開発についての打ち合わせをしています。どんな点を中心に改良しようと言っていますか。

<제1부 “청해테스트” 섹션3 「종합청해문제」 모의(2018)>

- 問1. 上司と部下が話しています。部下は、このあとまず、何をしますか。
- 問2. 会議で、男の人が、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新車の開発で重視することは何だと言っていますか。
- 問3. 取引先の男の人から、上司あてに、電話がかかってきました。女の人は、上司が戻ってきたら、どのように伝えますか。
- 問4. 男の人と女の人が、新しいシステムの購入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女の人は、このシステムの購入による最大のメリットは何だと言っていますか。
- 問5. 上司と部下が、業務アシスタントの採用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上司は採用に関して何を重視するようにと言っていますか。
- 問6. 男の人と女の人が、電話で話しています。女の人は、このあとまず、どこにFAXを送りま

すか。

問7. 男の人が、取引先の女のひとと新製品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新製品は、いつ納品することになりまか。

問8. 上司と部下が、話しています。上司は、今日のスケジュールの何を変更するように言っていますか。

問9. ある、メーカーの創立記念式典で、社長が話しています。社長は今後、どんなことを目標にすると述べていますか。

問10. 会議で、自社製品の販売促進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女の人は、このあと、何についての提案書を作成しますか。

이 섹션은 그림을 제시하고 대화문을 듣고 어떤 상황인지를 묻는 문제로, 그림만으로는 답을 유출할 없으며 내용은 「전화대화」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는 1대1 대면의 「담화」이다.

먼저 모의2015를 보면 총 9문항으로 「스피치 내용, 전화로 도시락 주문(도시락 주문 수), 출장(언제 출장을 떠나는지), 사내 전자메일활용 안(상사의 의중파악), 프로젝트의 진척상황(프로젝트의 목적), 수출상품의 신용장(수정내용), 사내 임원체제(변경사항), 스피치 내용(근속 표창 스피치), 제품(유니트바스) 개발 회의(개선 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모의2018의 경우, 「출장 전 상사와 부하의 대화(최우선 업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회의(개발에서 중요시하는 것), 거래처와의 통화(상사에게 전달할 말), 새로운 시스템 구입의 대한 동료의 대화(이 시스템 구입의 최대 메리트),상사와 부하의 업무어시스턴트 채용에 대한 상사와 부하의 대화(채용 시 중요시하는 것), 동료와의 통화(통화이후 최우선 업무), 신제품에 대한 거래처와의 대화(납품일), 스케줄에 대한 상사와 부하의 대화(상사의 변경할 스케줄), 창립기념식전에서의 사장의 스피치(사장의 앞으로 목표),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에 대한 회의(회의결과의 작성해야 할 제안서)」의 내용이다.

제1부 “청해테스트” 섹션3 「종합청해문제」는 크게 아래와 같이 「회의, 전화, 대화, 스피치」4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회의는 거래처와 사내, 전화는 동료와 거래처, 대화는 업무관련이 가장 많으며 채용, 납품일, 스케줄 변경 등 다양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스피치는 퇴사, 표창, 창립기념식으로 업무상 접할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화내용-출장, 전자메일 활용, 프로젝트 목적, 상품의 신용장, 임원체제,
새 시스템 구입의 메리트, 어시스턴트 채용, 납품일, 스케줄 변경
전화내용-도시락주문, 전언, 최우선 업무(2)
회의내용-상품개발, 설문조사 결과, 제안서

스피치내용-은퇴, 근속표창, 창립기념식

제1부 파트인 “청해테스트”는 섹션1,2는 전반적으로 사내를 중심으로 상사와 부하 또는 동료의 대화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섹션3은 주로 사내의 동료 및 상사와의 대화 내용이나 회의내용이며 업무적인 전화 및 스피치 등을 다루고 있다. 섹션1은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추측 가능한 문제인 반면 섹션2는 자신의 비즈니스상의 위치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묻는 문제들이 주가 되고 있다. 섹션3의 경우 회화문이 비교적 길어 집중도가 필요하며 제시한 그림이나 사진만으로는 답을 유추하기 힘든 문제라 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업무상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이며 도시락 주문이나 스피치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제2부 “청독해테스트”의 내용분석

제2부 파트는 2015년 시험에서는 섹션1/2로 나뉘어져 섹션1에서는 「묘사문제」, 섹션2에서는 「청독해문제」를 다루고 있었으나 2018년 시험에서는 섹션1/2/3으로 나뉘어져 섹션1 「상황파악문제」, 섹션2 「자료청독해문제」, 섹션3 「종합청독해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모의2015와 모의2018의 출제경향이 다르므로 3.1과 달리 모의2015와 모의2018로 분류하여 문제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모의2015의 문제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부 “청독해테스트” 섹션1 「상황파악문제」 모의2015>¹⁴⁾

- 問1. 机の下に、領収書が落ちていました。何の領収書ですか。
- 問2. この図は、横浜衛生局の資料です。この図によると、身長175センチメートル、体重80キログラムの人は、どのように判断されますか。
- 問3. ハナマルデパートの別館に行きたい場合は、地下鉄の出口のどこを出たらいいのでしょうか。
- 問4. この図は、小売業がどのように変わってきているか表しているものです。この図によると、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は、どんな性格をもっ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か。
- 問5. 社員寮に住んでいるリーさんは、次のようなメモをもらいました。リーさんは、何時に課長に会うことになりますか。
- 問6. 次のグラフは、日本の発展量の割合の移り変わりを表したものです。このグラフから、この半世紀あまりの間に、どんな変化があ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か。
- 問7. 航空会社のマイレージを使って、国内旅行を計画しています。国内線の普通席を申し込みます。インターネットで申し込むと、マイレージはどのくらい得をすることになりますか。

14) 내용분석 대상인 모의테스트는 본 시험의 문항수와는 다른 각각 9문항으로 되어있다.

問8. 雑誌の宣伝です。この宣伝の品物は、どんなものですか。

問9. パソコンを習いたいという上司がいます。次のお知らせのどこに電話した方がいいと勧めますか。

섹션1 「묘사문제」는 「영수증의 내용, (신장과 체중)그래프의 내용에 따른 파악, 표지보고 지하철 출구 찾기, (소매업)도표의 내용분석, 사원기숙사 메모의 내용파악(면담시간), 그래프 내용파악(발전량의 변화내용), 제시정보를 비교분석(항공마일리지신청), 잡지광고, 적절한 레슨 정보 찾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섹션1에서는 모두 그래프나 메모 게시판 등의 제시된 자료를 보며 파악해야하는 문제들이다. 업무관련 내용으로는 「그래프 파악2, 도표의 내용분석」으로 그래프를 제시한 문제가 2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그 외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나 직장인으로서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 할 수 있다.

업무관련 - 그래프 내용1/2, 도표 내용,

업무 외 - 영수증, 잡지광고, 기숙사 메모, 지하철 노선정보, 항공마일리지 신청정보, 적절한 레슨정보 찾기

다음으로 섹션2 「자료청독해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2부 “청독해테스트” 섹션2 「자료청독해문제」 모의2015>

問1. ある会社の人が、自分の会社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日本国内にある販売拠点は何か所ですか。

問2. 会社で会議をしています。最初に、何について話し合いますか。

問3. セミナーの途中に参加しました。男の人が話しています。進行表のどこですか。

問4. 男の人が、講演の依頼を確認するために電話をかけてきました。電話のあと、男の人からどのようなパンフレットを送ってきます。

問5. 女の人が会社の同僚と、失業保険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この女の人の場合、どのぐらいの期間、失業保険のお金がもらえますか。

問6. 社長と秘書が今日の予定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社長は、どの予定をキャンセルしますか。

問7. 百貨店の婦人服部長が販売業績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婦人服部門の業績はどれですか。

問8. 男の人と女の人が出張先の海外での資料購入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どの内規を適用しようと言っていますか。

問9. 会社で上司と部下が話しています。女の人とはどんな文書を作りますか。

위와 같이 섹션2 「자료청독해문제」는 「도표를 보고 판매거점 수 파악하기, 정례회의(정기 사내회의내용파악), 정례세미나(회의의 진행부분파악), 전화내용의 완성된 강연 팸플릿 찾기, 표를 보고 실업보험 수령기간 찾기(동료), 사장과 비서의 대화(일정표의 캔슬 일정 찾기), 회의(백화점 판매업적 설명), 해외출장시 자료구입설명(자료구입의 적용내역), 상사와 부하의 대화내용(작성한 팩스문서찾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문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대화내용 - 판매거점, 일정표, 팩스문서, 자료 구입

전화 - 팸플릿

회의 - 정례사내회의, 정례 세미나, 판매실적

정보파악실 - 업보험수령기간

섹션2에서는 담화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자료를 선택하는 문제들로, 회의상황이 3문항이나 출제되고 있으며 주로 사내의 업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섹션1에 비해 섹션2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으며 어휘적으로도 「販売拠点、見通し、製造コスト、失業保険、勤続年数、拡張計画、共同仕入れ商品...」과 같이 난이도가 높은 어휘들이 두드러지며 이들은 지면의 정보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어휘적인 지식이 없으면 놓칠 수 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모의2018의 「제2부 청독해테스트」는 모의2015와 달리 모의테스트 구성이 변경되어 「상황 파악문제 5문항, 자료청독해문제 10문항, 종합청독해문제 10문항」으로 전체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섹션1의 문제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부 “청독해테스트” 섹션1 「상황파악문제」 모의2018>

- 問1.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何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か。
(コピー機の点検)
- 問2.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何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か。
(新製品の宣伝)
- 問3.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何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か。
(支払いの日付)
- 問4. 上司と部下が、話しています。何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か。
(出張の日時)
- 問5.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新店舗の何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か。
(候補地が適切か)

섹션1은 사진을 보며 회화문의 화제를 찾는 문제로 섹션1의 「상황과악문제」의 내용을 보면 모두 남녀의 대화문으로 「복사기 점검, 신제품의 선전, 지불일, 출장일, 신점포의 적절한 후보지」에 대한 회화문을 제시하여, 회화정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섹션2의 「자료청독해문제(10문)」은 다음과 같다.

<제2부 “청독해테스트” 섹션2「자료청독해문제」모의2018>

- 問1. 席に戻ると、机の上に、次のようなメモがありました。メモを見たあと、どうしますか。
- 問2. 次は、本社までの交通手段ごとの所要時間と費用のリストです。予算は、往復で2万円です。予算内で最も早い交通手段はどれですか。
- 問3. 次のようなメールが届きました。会議の当日、何時までに会議室に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 問4. 次のグラフは、あるデパートの4つの店舗における過去4年の集客数の推移表しています。集客数を着実に伸ばしているのはどの店舗ですか。
- 問5. 次は、ある会議室の予約状況です。朝から1日、会議をする予定で、参加人数は12人です。使用料金を最も安くするためにはどこを予約しますか。
- 問6. 取引先から、次のような文書が届きました。製品展示会に行く場合には、どうしますか。
- 問7. 次の広告は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向けの新しいシステムに関するものです。このシステムでは、どんなことができますか。
- 問8. 次の表は、ビジネスセミナーの案内です。会社案内の作成担当者が参加する研究はどれですか。
- 問9. 次の求人広告はどのような会社のものですか。
- 問10. 取引先から、次のようなメールが届きました。商品が出荷できないのはどうしてだといっていますか。

시각자료를 보며 그 자료에 관해 답하는 문제인 섹션 2 「자료청독해문제(10문)」의 내용을 보면 「연락메모, (본사까지의)교통수단 리스트, 메일(회의시간변경 건), 점포별 집객수의 막대 그래프, 회의실 예약상황 표, (거래처에서 온)문서(제품전시회안내), 새 시스템 안내문, 세미나 안내문, 광고문, 메일(거래처에서 온 주문 상품)」의 시각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시각자료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문서-제품전시회 안내문, 새 시스템 안내문, 세미나 안내문, 광고문
 메일- 회의시간 변경 건, 주문 상품
 그래프/표-점포별 집객 수, 회의실 예약상황 표,

정보과학·메모과학, 지도(본사까지의 교통수단)

섹션3의 모의테스트(2018)의 「종합청독해문제 10문항」은 다음과 같다.

<제2부 “청독해테스트” 섹션3「종합청독해문제」모의2018>

- 問1. 新入社員が先輩に、海外関連のファイルについて訪ねています。新入社員は、どのファイルを見ますか。(海外支店の業務報告)
- 問2. 男の人が、お客と電話で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注文伝票(視覚資料)のどこを変更しますか。(出荷日=納期を早める)
- 問3. 研究会で、講師の男の人が話しています。現在、プログラムのどこですか。
ー 視覚資料はプログラムで講師がプログラムのどこを話しているかを聞き取る問題。
- 問4. 商品会社の上司と部下が、展示会の準備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部下はまだ準備が終わっていないのはどの項目だと言っていますか。
- 問5. 男の人が、電話で、会社の場所を聞いています。会社はどこにありますか。
(会社がどこにあるか地図から判断する問題)
- 問6. 上司と部下が、株主総会の案内状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部下は、案内状のどの部分に文章を追加しますか。
- 問7. 上司と部下が、スケジュールの変更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上司は、どの時間帯に追加したスケジュールを入れますか。(資料と関連づけて聞いて、会話の結論を把握する問題)
- 問8. セミナーで、講師の女の人が、顧客との商談の際の心得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講師は、見落としがちなのは、どの項目だと言っていますか。
- 問9. 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の本部会議で、今ある店舗を強化する対策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上司はこのあと、どの案を検討すると言っていますか。
- 問10. 上司と部下が、セミナーの公告案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部下は、このあと、公告案のどこを直しますか。(公告案について修正が必要なところを聞き取る問題)

섹션3은 문서나 도표 등의 시각자료를 보면서 회화 등의 음성정보를 듣고 답하는 문제로 청해와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섹션3의 「종합청독해문제(10문)」의 내용을 보면 「파일(해외지점의 업무보고), 주문전표의 변경부분, 강연의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전시회준비작업 미수행건, 지도를 보고 회사위치파악(전화통화), 안내장의 추가내용의 위치, 스케줄 변경, 세미나에서 강조항목, 점포강화를 위한 검토 안, 광고안의 수정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시각자료로는 「파일, 주문전표, 프로그램, 전시회 준비작업 일람표, 지도, 안내장, 스케줄표, 문서(상담의 마음가짐), 점포강화책(안), 광고안」으로, 주로 상사와 부하의 대화를 통해

제시한 문서의 수정이나 변경, 강조하는 부분 등을 묻는 문제이다.

대화-대화 파일, 전사회준비, 안내장 추가내용, 스케줄 변경, 세미나 공고안
전화-회사 위치, 주문전표의 변경
회의-점포강화 대책 안
스피치 - 연구회

4. 나오며

본고에서는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의 청해 문제에 주목하여 제1부 청해테스트와 제2부 청독해테스트를 중심으로 이들 문제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문제유형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1부 파트의 경우, 섹션1,2는 전반적으로 사내를 중심으로 상사와 부하 또는 동료의 대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섹션3은 주로 사내의 동료 및 상사와의 대화 내용이나 회의내용이며 업무적인 전화 및 스피치 등을 다루고 있다. 문제유형을 보면 섹션1은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추측 가능한 문제이며, 섹션2는 주로 상사와 부하의 대화내용으로 비즈니스 상에서 적절한 표현을 묻는 문제들이다. 반면 섹션3의 경우 회화문이 비교적 길어 집중도가 필요하며 단순히 그림이나 사진만으로는 답을 유추하기 쉽지 않은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제2부 파트의 경우, 모의2015은 섹션 1/2로 구성되어 있으며 섹션1은 사내 및 직장관련 내용을 고루 다루고 있으며 섹션2에서는 주로 사내의 회의나 설명을 다루고 있으며, 섹션2로 갈수록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개정된 제2부 파트의 모의2018를 보면 상황파악문제, 자료청독해, 종합청독해의 섹션1/2/3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된 제2부 파트는 자료청독해가 추가되어 모의2015보다 난이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었다 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모의2015와 마찬가지로 사내 업무를 중심으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裴(2017)에 의하면 비즈니스일본어 교재의 내용에서는 「자기소개-명함교환-전화응대-방문-회의-문서작성(e-mail)-접대-영어」가 전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비즈니스일본어 교재의 정형화된 내용으로는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의 청해문제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를 위한 상황별 내용학습에는 보다 다양한 설정과 어휘를 요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막연한 문서자료가 아닌 도표, 메모 팸플릿, 일정표, 광고 등과 같은 시각자료의 다양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시청각자료의 제시와 내용면에서의 변화된 적절한 비즈니스교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参考文献】

- 공익재단법인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 편저(2018)『BJT비즈니스일본어 능력 테스트 공식 모의테스트& 가이드』
해외교육사업단
- 방선영(2009)『구성 언어 문화 측면에서 살펴본 비즈니스 일본어교재분석』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李明寧(2013)『韓国におけるビジネス日本語教材開発に関する研究』釜山外国語大学大学院 博士学位論文
- 小野寺志津(2005)『ビジネス日本語の教育内容に関する研究』同徳女子大学大学院 修士学位論文
- 加藤清方(2015a)『BJTビジネス日本語能力テスト公式ガイド(改訂版)』해외교육사업단
- 加藤清方(2015b)『BJTビジネス日本語能力テスト体験テストと解説(改訂版)』해외교육사업단
- 裴晋影(2017)『韓国のビジネス日本語教材の一考察—BJT日本語能力テストに注目して—』『일본문화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 <http://www.bjtttest.com/>(검색일: 2018.02.02.)
- <http://www.kanken.or.jp/bjt/about/feature.html>(검색일:2018.02.02)

논문투고일 : 2018년 10월 01일
 심사개시일 : 2018년 10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11월 09일
 2차 수정일 : 2018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9일

<要旨>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의 내용에 대한 고찰

배진영

본 연구는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의 청해문제에 주목하여 제1부(청해테스트)와 제2부(청독해테스트)를 중심으로 이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1부 파트를 보면 섹션1,2는 전반적으로 사내를 중심으로 상사와 부하 또는 동료의 대화내용을, 섹션3은 주로 사내의 동료 및 상사와의 대화 내용이나 회의내용이며 업무적인 전화 및 스피치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섹션1은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추측 가능한 문제이며, 섹션2는 주로 상사와 부하의 대화내용으로 비즈니스 상에서 적절한 표현을 묻는 문제들이었다. 반면 섹션3의 경우 회화문이 비교적 길어 집중도가 필요한 문제들이었다.

제2부 파트의 경우, 모의테스트 2015은 섹션1은 사내 및 직장관련 내용을 섹션2에서는 주로 사내의 회의나 설명을 다루고 있다. 모의테스트 2018의 경우 모의테스트 2015보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난이도를 나누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모의2015와 마찬가지로 사내 업무를 중심으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Study on the Contents of BJT Business Japanese Proficiency Test

Bae, Jin-Young

This study focused on the listening test of the BJT Business Japanese Proficiency Test, and examined the contents of Part 1(Listening test) and Part 2(Listening & Reading test).

Looking at the Part1, Sections 1 and 2 are centered on dialogue between superiors and subordinates or colleagues, mainly inside the company. Section 3, on the other hand, is the content of dialogue and conference, mainly with colleagues and supervisors, dealing also with business phone calls and speech. Section 1 is a question that can be inferred from pictures and photographs. Section 2 was a question primarily asking whether the boss and subordinate dialogue would be suitable for business representation.

In the case of Section 3, the conversational sentence is relatively long and it requires concentration.

Looking at the Part 2, Section 1 of Practice Test 2015 is content within the company and the workplace, and Section 2 deals mainly with internal meetings and explanations. In the case of the simulation test 2018, it is divided into three stages from two steps of the simulation 2015, and the difficulty level by stage is high. As for the content side, it was confirmed that it handles various business contents that can occur in the company like the simulation 2015.